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 불교운동 전개

### 전북불교계, 힘모아 2월 22일 전북생명평화센터 개소

'천천히 함께 생명평화'라는 슬로건 아래 전북지역에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전북불교시민연대(공동대표 박인순, 오종근, 유지원, 김진병)가 전주시 금암동에 전북생명평화센터를 마련하고 2월 22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 전북불교대학 학장 도원 스님, 보통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송하진 전주시장, 유성업 국회의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300여 대중이 참석해 전북생명평화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도영 스님은 축사를 통해 "마음이 평화로워야 세상이 평화롭다"며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이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종근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전북생명평화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불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대중불교운동의 실험을 통해 더불어사는 생명평화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금암동 두산아파트 상가에 300

### 전북불교시민연대 등 단체 입주

### 사찰음식·명상체험 운동 전개

### 무료급식소 마련 나눔 활동도

평 규모로 마련된 전북생명평화센터에는 전북불교시민연대, 자연음식문화원, 전북불교연합대책위, 전주 우리는 선우, 생명나눔실천전북본부(준), 붓다로살자 전북모임, 생명평화생협(준), 식생활교육전주네트워크 등의 단체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전북생명평화센터에서는 사찰음식간좌를 위한 음식체험관과 실습실, 학생식생활교육실, 대강당, 소회의실, 생명평화법당, 명상·&#8231;다도체험관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생명평화센터는 무료급식소를 마련해 이를 통한 나눔 운동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센터 대관과 사찰음식을 위주로 하는 수익사업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센터 개소식에 이어 2월 22~23일



전북생명평화센터 개소식에서 불교NGO단체 대표들이 활발한 생명평화·나눔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양일간 개최된 바자회에서는 회원들이 직접 만든 조청, 유자청, 오미자차, 연잎차 등 자연사찰음식에서부터 천연염색 스카프, 천연효소비누 등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판매하고 건강한 음식위주의 먹거리장터도 진행되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전북생명평화센터에 입주한 자연음식문화원은 불교시민연대와 함께 장애인 고용 체험학습, 주말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요리교실, 이주민여성고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전통음식교육, 무료급식지원활동, 학

교영양사대상 채식교육, 대학생 채식요리 경연대회 등을 개최해 왔다.

자연음식문화원은 향후 사찰음식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적응해나갈 것에 대한 꾸준한 고민과 실험을 전개하는 한편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강좌를 통해 자연음식 연구와 친환경급식운동 등 식생활개선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생명평화센터의 개관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교생명평화운동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여수 청암사, 전주소년원 교정교화활동



지암 스님이 소년원원생들과함께 식사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해동불교임제종 여수 청암사 지암 스님과 청암사 신도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봉행해오던 방생법회를 전주 송전정보통신학교(전주 소년원) 보호소년들을 위한 교화활동으로 대신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암 스님과 청암사 불자들은 2월 23일 전주소년원(원장 장인기)에서 보호소년의 교화활동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도우미로 나서기로 하고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통한 비행 예방활동을 펼쳤다.

지암 스님과 법무부 청소년보호협회 나용수 회장, 청암봉사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청암사 불자 50여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120여 명의 보호소년들에게 집에서 준비해간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자매결연한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을 하는 시간

을 가졌다. 여수 청암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봉행해오던 물고기와 날짐승을 살려주는 방생법회에서 벗어나 사회에 그늘진 곳을 찾아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펼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소년원이나 교도소를 찾아 재소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기로 했다.

지암 스님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청소년들은 가족과 주변의 무관심속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며 "정에 굶주린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불교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암봉사협회는 광주 소년원, 대전 소년원 등 전국 소년원을 찾아 멘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곡성 성륜사. 금타스님 열반다례재 봉행



금타 스님 열반다례재에는 문도회 회장 용타스님을 비롯한 300여명의 대중이 동참했다.

근대불교의 큰 어른이셨던 벽산당 금타스님(1898~1948)의 66주기 열반다례재가 봉행됐다.

곡성 성륜사(주지 광전)는 지난 5일 경내 법성당에서 벽산 문도회 의장인 용타스님, 벽봉 스님, 무상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신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다례재는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행장소개, 보리방편문 봉독, 종사영반, 헌다, 헌화, 문도대표 인사가 진행되었다. 용타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큰스님의 수행정진과 깨달음의 내용을 많은 후학들이 배워 정진하자"는 인사말을 말했다.

이날 주지로 취임한 광전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성륜사는 마음의 고향같은 곳

이다.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스님은 이어 "산내에 있는 출가자, 재가자 선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례재가 끝난 후 정은당에서는 벽산문도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 1년예결산과 사업안에 대한 결의가 진행됐다.

한편 금타 스님은 1919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교학과 참선을 두루 공부했다. 지난 1936년 백양사 운문암 동안 거 수행시절 '월각경 삼정관의 이심오 청정법륜으로 용맹 정진했다. 부안 내소사 월명암에서 지낸 한차례 안거를 제외하고는 10여 년간 내장사 벽련선원과 백양사 운문선원에서 정진했다.

## 송광사 2월 27일 '전등율맥 전계법회'



송보장찰 송광사(주지 무상)는 지난 27일 대웅전에서 '전등율맥 전계법회'를 개최하고,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유주 지현 스님에게 이어진 율맥을 성원스님, 연광 스님을 비롯해 9명의 전법제자에게 법을 전달했다.

이날 율맥을 전달받은 성원스님(제주 약천사 주지), 연광스님(광주 증심사 주지), 오산스님(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 울감), 여운스님(진판사 주지), 동일스님(광명 금강정사 주지), 법동스님(서암정사 주지), 화진스님(김포 반야정사 주지), 석두스님(광주 광제사 주지), 덕우스님(무안 목우암 주지) 등 전법제자들은 계율을 근본으로 삼아 수행정진에 매진할 것을 서원했다.

행사는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인사말, 헌향, 고불문(전계사), 약력소개, 헌다·헌화(전법제자), 청법계, 전법계 수여, 서원문, 축사, 전법제자 대표인사, 사후서원

으로 진행됐다. 송광사 주지 무상스님은 인사말에서 "요즈음 한국불교는 승가의 본연의 모습이 흐트러지고 가풍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날 전수식을 통해 앞으로 송광사의 승풍이 살아있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율맥을 전한 지현스님은 법문을 통해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은 수없는 생을 통해 선근을 심은 사람이다. 계율은 마음이 근본이며,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이다"라고 말하며, "깨달음을 위해서는 계율이 기본이 되어 삼학(계·정·혜)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현스님은 지난 2005년 보성스님으로부터 율맥을 전수받아, 송광사 유주, 조계종 고시위원, 조계종 계단위원, 단일계단 교수사 및 준중사, 부산관음사 주지를 역임했다.

이날 전계법회에는 해인사 지행스님, 만일스님, 스리랑카 난다스님을 비롯해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전법제자를 대표해서 성원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승을 한다는 것은 앞선 좋은 것을 잘 받아 후대에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다"라며, "서로를 견책하며 보다 나은 부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전북불교대학 불기 2558년도 졸업식



전북불교대학(학장 도원)이 2월 23일 완산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불기 2558년도 졸업식을 개최했다. 불교학과 25명, 법학과 15명의 불자가 졸업한 이날 졸업식에는 천상호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동문들과 졸업생가족 100여명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학장 도원 스님은 졸업사를 통해 "불교대학을 졸업하는 이 시간이 부처로 살 수 있는 용기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며 "모든 사람들이 증생을 벗어나 부처님

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전법과 포교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불교학과 박상태, 법학과 이충호를 비롯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졸업생들에게 표창장이 수여 됐다. 한편, 1988년 설립돼 3,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북불교대학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 없이 문호를 개방하고 부처님의 교리와 불교역사 등 1년간의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014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2년과정]

www.dongsanbud.net

모집학과

- 불교학과 접수중
- ▶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50명
- ▶ 목요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0명
- ▶ 통산반 : 30명

▶ 불교도도학과(2년) 3월 4일(화) 오후 2시  
▶ 교과목 한국 지문화, 유럽지문화, 일본지문화, 중국지문화, 타-테이비서문, 차의이학, 제다삼명

▶ 불교미술학과(3년) 3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 교과목 사물기본, 불화기본, 단청기본, 선종초, 보살초, 야초, 영산회상도, 정토명상도, 수월관음도, 개별작품지도

▶ 선·명상학과(2년) 3월 6일(목) 오후 7시  
▶ 교과목 1학기: 선불교 개론 | 2학기: 영물선 정토선 | 3학기: 초기불교, 청정도론 | 4학기: 태백명상, 립법

열린 경전반(3개월)	붓다 한 말씀(초기 니까야 경전말씀)	이미경 교수	3월 8일(토) 오후 4시	
	부처님 생애(초기불교 1)	김형준 교수	3월 4일(화) 오후 7시	
불교대학원 (3년 : 법사과정)	묘법연화경 2	차차석 교수	3월 4일(화) 오후 8시	
	초기불교수준론 9 (구차제정)	최봉수 교수	3월 6일(목) 오전 11시	
불교의식교육원 (2년 : 의식법사과정)	법패의식반	인각 스님	3월 5일(수) 오후 3시	
	한글의식반	한글의식	문중순법사	3월 8일(토) 오후 2시
		다비작법 (하)	심만춘 스님	3월 8일(토) 오후 4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 원  
원서교부 및 접수 : 2014년 2월 2일부터 문의 : (02) 732-1206~8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종병, 부사관, 장교)는 전액면제 교육함.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사무처: 서울시 종로구 우정로45-11(숭례문 46-20,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인도 나란타대학〉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동명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인체의 활성체계 기gan  
인체의 활성체계 기gan  
인체의 활성체계 기gan  
인체의 활성체계 기gan  
인체의 활성체계 기gan

인체의 활성체계 기gan  
인체의 활성체계 기gan  
인체의 활성체계 기gan  
인체의 활성체계 기gan  
인체의 활성체계 기gan